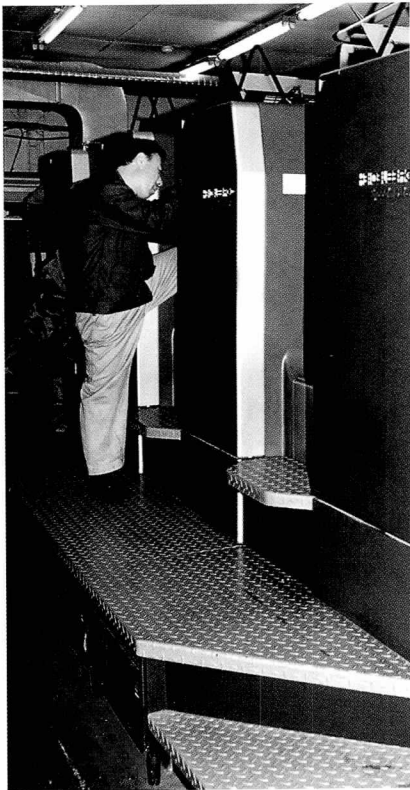


거꾸로 가는 산재보험

인쇄업 산재 감소하는데 보험요율은 상승



인쇄업계로서는 노동부의 산재재해보상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004년도 산재보험보상요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200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362건으로 보상요율 13/1000이 적용된 2003년도의 기초자료로 조사된 2002년의 산업재해 발생, 412건 보다 12.1% 줄어든 건수이다.

산업재해의 강도를 나타내는 재해율 또

2003년 인쇄업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에 적용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오히려 인상 발표됨에 따라 적정 요율 적용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 따르면 2004년 인쇄업에 적용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지난해 보다 0.002P 오른 15/1000이다.

한 2002년 1.10보다 14.5% 줄어들어 0.94에 지나지 않았다.

재해 발생 빈도수와 재해율과 상관없는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셈인데, 인쇄 관련 산업도 인쇄업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경인쇄업(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포함)종의 보험요율은 5/1000로 지난해와 같은 요율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경인쇄업종의 2003년 재해발생건수는 2002년과 비교 15.98% 줄어들었으며, 재해율 또한 0.22로 2002년 재해율 0.27보다 낮았다.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필프 지류제조업 포함)에 올해 적용될 보험요율은 20/1000으로 지난해 보다 17.6% 상승했다.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의 보험요율 인상은 재해율이 지난해 보다 38.4% 상승한 2.09이어서 어느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업종 역시 사고발생건수는 583건으로 2002년 보다 8.9% 줄어든 상태여서 과도한 상승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

다.

정작 문제는 2004년 보험요율이 올랐다는데 있지 않고, 산재발생건수나 재해율, 사망율의 변동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어 왔고, 이러한 관례(?)에 따라 앞으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96년 이후 산업재해 발생을 및 재해율과 보험요율 변동 추이를 보면 과연 보험요율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99년 인쇄업의 보험요율은 14/1000로 98년의 12/1000보다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98년 한해 발생한 산재건수는 230건으로 97년 278건보다 훨씬 적었으며, 산재율 또한 0.81로 97년 산재율 0.89보다 낮았다.

99년 제본 및 인쇄물 가공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99년 제본 및 인쇄물 가공업에 적용된 보험요율은 18/1000로 98년 15/1000에서 갑작스레 증가했다.

하지만 98년 산재발생건수는 70건으로 97년 95건과 비교 월등히 감소했으

〈2004년 산재보상보험요율 및 2003년 산업재해 현황〉

구분	재해자 수	재해율	사망자 수	사망율	보험요율
필프, 지류제조, 제본 및 인쇄물가공	583	1.35	9	2.09	20
신문 및 화폐발행, 출판, 경인쇄	184	0.22	8	0.96	5
인쇄업	362	0.94	3	0.78	15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규모	재해자(명)	구성비(%)
총계	69,960	100.0
5인 미만	14,777	21.1
5~9인	10,854	15.5
10~29인	16,897	24.1
30~49인	5,728	8.2
50~99인	5,751	8.2
100~199인	4,478	6.4
200~299인	2,312	3.3
300~499인	2,026	2.9
500~999인	1,982	2.8
1000인 이상	5,155	7.4

〈요일별 산업재해 현황〉

규모	재해자(명)	구성비(%)
총계	69,960	100.0
월요일	11,964	17.1
화요일	11,388	16.3
수요일	11,066	15.8
목요일	10,735	15.3
금요일	11,282	16.1
토요일	9,204	13.2
일요일	4,321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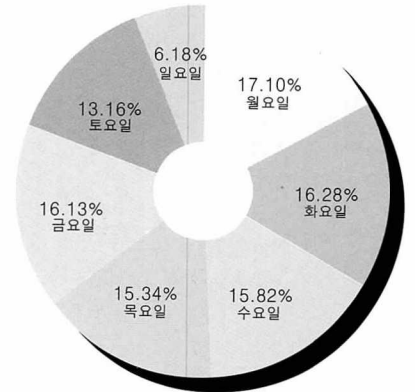
〈입사근속기간별 산업재해 현황〉

규모	재해자(명)	구성비(%)
총계	69,960	100.0
0~6개월 미만	34,031	48.6
6개월~1년 미만	7,190	10.3
1년~2년 미만	7,079	10.1
2년~3년 미만	4,256	6.1
3년 이상	17,404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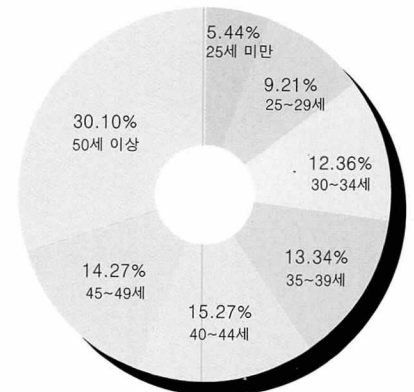
〈연령별 산업재해 현황〉

연령별	재해자(명)	구성비(%)
총계	69,960	100.0
25세 미만	3,808	5.4
25세~29세	6,446	9.21
30세~34세	8,650	12.4
35세~39세	9,336	13.4
40세~44세	10,680	15.3
45세~49세	9,983	14.3
50세 이상	21,057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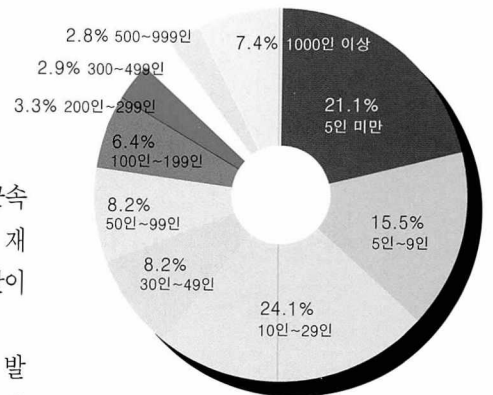
요일별 재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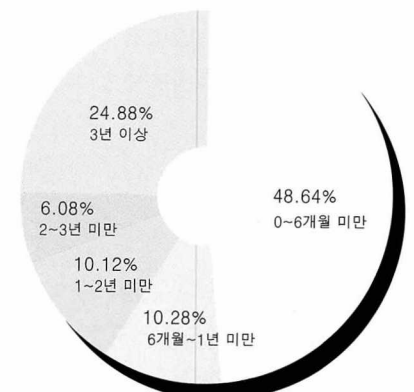
연령별 재해율



규모별 재해율



입사근속기간별 재해율



며, 재해율 또한 1.07로 97년의 1.26보다 훨씬 감소했다.

2003년 9월까지 전체 산업 재해율은 0.6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0P 증가했으며, 재해자수 또한 6만9960명으로 1만673명 증가했다.

아울러 총 2154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 사망인원율은 2.0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4P 증가했다.

산업안전보다는 생산량 증가에 목표를 두기 쉬운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 발생 빈도수가 높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69.0%가 발생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21.1%가 발생했다.

입사기간 별로는 살펴본 산업재해 발생 빈도수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전체 재해

의 58.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재해율이 48.6%에 이르는 등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재해율이 높았다.

근속연수가 짧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높은 가운데 특이할만한 사항은 연령이 높을수록 재해 발생빈도수가 높다는 점인데, 30대 이하의 연령에서 한 자리수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30세 이상에서는 두 자리수 재해율을 보였다.

아울러 요일별로는 휴식을 가진 이후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월요일이 17.1%로 가장 높았으며, 요일이 지나갈수록 빈도수가 떨어졌다.

(이용우 기자)